

'New MBC New MIND'로 상암시대를 열다



상암시대 'NEW MBC' 개막(開幕)!!

MBC가 새로운 상암시대 개막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MBC는 지난 1일 오후 3시, 상암동 신사옥 광장에서 'MBC 상암시대 개막 기념식'을 갖고 50여년의 전통과 첨단 기술력을 융합해서 명실공히 글로벌 방송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MBC가 창의적인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창조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MBC 상암시대 개막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문화융성을 지원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광환 MBC 사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반세기 역사의 MBC가 상암신사옥에서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탄생하는 새로운 방송 역사를 써나갈것을 약속드리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하고 "제2의 창사정신으로 한류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대통령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 조대현 KBS사장, 이웅모 SBS사장, 김수량 MBC사우회 회장, 강성구, 엄기영, 김재철, 전 MBC사장 등 초청인사 160여명이 참석해서 MBC의 상암시대 개막을 축하해 주었다.

MBC미술센터 **mbc ARTS**로 사명(社名) 개정

MBC미술센터(사장 정운현)가 지난 7월1일 창사 22주년을 맞아 회사 이름을 'MBC ARTS'로 바꿨다. MBC미술센터는 '시대변화에 걸맞는 진취적 위상을 정립하고 외부사업 활성화 등 제2의 도약을 꾀하기 위해' 회사이름을 개정했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이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종합미술회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고 한다.

골프대회 9/30(화) 등 하반기 행사일정 확정

사우회가 주관하는 올 하반기 행사는 골프대회가 문을 연다. 골프대회는 9월30일(화) 진천 에머슨 골프장에서 개최한다. 봄철대회와 마찬가지로 10개팀 40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조별 참가자 명단과 티업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참가가 확정된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낚시대회는 10월10일(금)에 하기로 했다. 장소가 정해지면 총무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된다. 등산대회는 10월22일(수)에 갖기로 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걸을 예정이며 10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바둑대회는 10월 29일(수)에 실시할 예정이다. 사우회 사무실에서 오전 10:00에 대진을 추천하기 때문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들께서는 09:40까지 정동 사무실로 나오시면 된다. 원로회원 산업시찰은 10월16일(목)에 떠난다. 수도권 일원을 중심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참가 대상자는 사무처에서 개별 통지한다. 마지막으로 올 송년의밤 행사는 12월11일(목) 저녁 6:00에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다. 송년의밤 행사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엽서를 11월 중순쯤 회원 전원에게 보낼 계획이다.

2014년 제2차 이사회 열려

2014년 제2차 이사회가 8월20일(수)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종규 총무이사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우회 상반기 실적보고와 함께 사우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내년에 '컬러회원수첩' 제작, 현재 6면으로 제작되고 있는 사우회보를 2015년 1월에 발행되는 27호부터 8면으로 증면하는 계획들도 보고했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사우회가 부동산 전대(轉貸) 사업을 시작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사우회-문화보험이 각각 법인체로 존재할 필요성이 소멸됐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사우회와 문화보험을 1개 법인체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사들은 '컬러회원수첩' 제작때 현재의 수첩처럼 '부문별'로 할 것인지, '가나다순'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우회-문화보험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사무처가 잘 검토하고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3社 사우회 바둑대회 10월 14일(화)에 갖기로

MBC와 KBS, SBS사우회는, 제1회 친선 바둑대회를 10월14일(화) 오전 10:30에 여의도 송천기원(02-785-0112)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선수는 사우회 별로 2명씩 출전시키고 이들 6명이 '풀 리그'를 벌여 우승자를 가리도록 했다. 또 대표선수 외에 5명씩을 더 참가시켜 모두 15명이 친선 대국을 갖고 우의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기로 했다.

희망과 감동, 상암시대 개막

세계지속의 MBC, 1234를 열다

1961

1961년 12월 2일 아침 6시,
"MBC, 여기는 문화방송 HMKV"

1969

1969년 8월 2일, 정동 사옥,
"MBC의 원대한 야망의 시작"

1982

1982년
"컬러의 세상, 그리고 여의도"

2007

2007년, 스튜디오 시설 확충과
일산 드림센터 건립

2014

2014년 9월 1일, 상암 신사옥 'New MBC, New Start'

회원동정



황선길(편제)

9월 3일 제 41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28년간 37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안광한(편제)

7월 31일 2014년도 한국방송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제 20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김충식(ANN)

딸 세희양이 8월18일(월) 저녁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가졌다.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세희양은 현재 Orchestre Philharmonique de Luxembourg 종신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우성(편제)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에 있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야간에 週 1회 청소년들에게 한문공부를 지도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사우회 고문-회장단 간담회

김수량 회장은 초복이었던 7월18일(금) 사우회 고문들과 부회장-감사 일등을 서대문 이화여고 정문에 있는 한정식집 「어상」으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겸해 점심을 같이 했다. 김회장은 “오랜만에 뵙는 고문들의 모습이 좋아보여 감사하다”고 말하고 1년에 한번씩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수홍(업무)고문은 “잊지않고 불러 주어 고맙다”고 답하고 “1년에 한번씩이 아니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노서울-이수홍-서규석 고문과 박근숙 명예회장, 그리고 부회장과 감사 등 회장단 8명 전원이 참석해서 현역시절을 회고하고 자주 만날 수 없는 회원들의 안부를 묻고 전하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김회장은 세 분 고문과 박 명예회장에 넥타이를 선물로 드리고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기원했다.

상암동신사옥 꽃집 「비비드플라워」 개점



사우회가 위탁운영하는 상암동 신사옥 내 꽃집 「비비드플라워」가 7월11일(금) 개점했다. 월~금요일까지는 오전 9:00~오후 8:00, 토요일은 오전 10:00~오후 5:00 까지 영업한다. 결혼식 화환, 장례식 조화, 영전-승진에 따른 '축하란'과 행사용 각종 꽃과 기념품을 취급하며 전국을 커버한다. 신사옥 경영센터 지하 1층에 있으며 전화는 070-8837-7979 (구내전화 3830) FAX는 02-2025-7706번이다. 사우회가 처음하는 수익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 및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사우회, 컬러판 회원수첩 발행

사우회는 내년에 컬러판 회원수첩을 제작합니다. 컬러판 수첩에는 회원들의 사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수집하는데 가급적 최근에 촬영한 것으로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규격입니다.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지방이나 먼 거리에 사시는 회원들께서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낼 주소는 (jhkim5051@hanmail.net)입니다. 컬러판 회원수첩 제작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忍史)동이였다.

김 옥 균(편제)



#월급날 죄인

월급날 오후엔 으레 중국집 종업원이 외상수첩을 들고 나타나곤 했는데 그러면 외상 빚진 죄인들은 그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피하거나 숨어 다녔다. 그 무렵 중국집은 사옥의 대각선 방향으로 '보영루', 그리고 바로 옆 좁은 골목에 물만두 잘 하는 '대명원', 동일가구 맞은편으로 삼선짜장을 잘 하는, 조금은 고급스러운 '천향각'이 있었다. 짜장면 한 그릇은 30원, 사원들의 월급은 풍족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 이따금 외상 짜장면으로 점심을 때우는 수 밖에... 지금처럼 신용카드가 있다면 피차 얼굴 붉히는 고생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때야 얼굴이 신용카드였고 외상수첩이 청구내역이었다. 근무시간이라 피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결국 마주치게 되는데 “돈 내라”, “돈 없다” 심하게 싸우는 광경은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받을 사람은 그냥 쟁그리기만 했고 줄 사람은 멧쩍은 웃음을 짓기 일쑤였지만 반에 받을 줄지언정 빈손으로 보내진 않았다. 1960년대 중반, 너 나 없이 너넨 하지 않던 시절, 입 속으로만 투덜땀지 잘 참고 이해하는 인사동 분위기가 좋았다.

#문제는 해우소(解憂所)

인사동 사옥 3층은 중역실과 관리부서, 보도국이 있었고, 4층에는 제작 1,2부, 음악부와 아나운서실, 그리고 편성부와 기술부가 있었다. 5층에는 주조정실과 A,B 스튜디오. 그런데 화장실이 3,4층 두 곳에만 있었다. 그것도 남녀가 따로 구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가면 맞은편에 두 개의 남성용 소변기, 옆으로 문이 달린 두 칸은 여자용인 셈이었다. 합판으로 짠 문은 늘 잠금장치가 부실했고 잠금장치가 헐겁거나 떨어져 나갔으면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일을 봐야 했다. 밖에서 '뚝뚝' 노크할 때 안에 있는 사람이 남자라면 “에헴!”하겠지만 여자는

“에헴!”하기가 좀 그렇지 않았을까? 또 몇 안되는 여사원인지라 “에헴!” 한다고 누군지 모를 턱이 없으니 어찌면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한 손으론 문을 '뚝뚝' 두드리는 반응을 보였을 게다. 더구나 요즘같은 좌변기도 아니고 쪼그리고 앉은 변기였으니 그 괴로움이란.. 당시 4층 제작부에 성질 급하고 나이가 꽤 찬 여자 PD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많이도 급했던 상황에 4층 화장실은 만원이라 급한 김에 3층으로 달려 내려가서 다짜고짜 문을 확 잡아 제졌는데 아차, 거기에 남자가 있었다. 그 역시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있었지만 힘껏 잡아당기는 힘을 당할 수 있다. 서로 당황하는 순간, 성질 급한 여자 PD는 본능적으로 문을 확 닫았지만 이 미안함을 어떡할까? 그녀는 다시 한번 문을 확 잡아 제키고 “미안해욤!”하고는 문을 광 닫았다는데, 서로 누군지는 알아봤을 테지만 할 수 있나, 민망한 대로 넘어가야지...

#눈 오는 날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실버 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곡들을 섞어 크리스마스 특집을 생방송으로 마치고 이비인후과병원으로 갔다. 오랫동안 감기가 나가지 않더니 결국 바이러스 중이염을 일으켰던 것이다. 치료를 끝내고 나오니 어느새 눈이 내려 그야말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 거리는 벌써 어두웠고 모두 명동으로 나갔는지 인사동 길은 텅 비어 쓸쓸하기까지 했다. 별안간 외로움이 느껴진다. 며칠 전 받은 연말 보너스는 빛 값인데 다 나갔고 빈 주머니는 허전하기 짝이 없다. 방송국에 들러 퇴근할 일만 남았다. 장난스럽게 스키를 타는 것처럼 발을 '찌익 찌익' 끌면서 눈길을 가고 있는데 한



쪽 발이 뭔가에 걸린다. 내려다보니 “이게 웬 일인가?” 뻗뻗한 배추잎 빛깔의 백원짜리 한 장. 지금 돈으로 만원 값어치는 넘을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지금 생각하니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겐 안됐지만 당시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애인도 없고 갑자기 불러낼 친구도 없어서 '영화나 하나 보고 갈까'하고 종로 2가에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서 내렸다. 큰 길을 건너면 국제극장. 백열등으로 환하게 불을 밝힌 판잣집 대폿집들이 빈대떡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때 시인 '천상병'을 만났다. 한때 문학을 한다고 껍적대던 시절, 그는 이미 등단해서 중견시인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서로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소담 보듯 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소주 한 잔 사줘” “그러죠, 여기 들어갈까요?” 선뜻 응했지만 평소 그를 생각하던 나답지 않았다. 소주 한 병에 빈대떡 하나, 나는 귀가 아프니 마실 수 없었고 그는 순식간에 소주병을 비웠다. 서먹한 사이라 할 말도 별로 없었고 바로 헤어졌다. 영화를 볼 만큼 돈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는 그의 시 제목처럼 '귀천'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는 이미 중견 시인인데 나는 여전히 등단하지 못한 문학도라서 질투심도 약간은 있었을 게다. 하지만 그날 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주를 산 것은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안 그랬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지 모른다. “지가 뭐데 나한테 술을 사달래?”라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술을 산 것은 그 시절 다 같이 고생하던 인사동(忍史洞)의 공감 덕분이 아니었을까.

경조사

- **팔손** ■
안영순(관리)10/15 맹광호(업무)10/17 박연식(관리)10/25 이은명(보도)11/01 권태수(기술)11/05 이한익(기술)11/18 강창우(기술)11/30
- **고희** ■
김동성(편제)10/01 위호인(관리)10/04 주규만(전주)10/25 홍성기(관리)10/26 정봉일(대구)11/05 김인식(전주)11/09 신원호(기술)11/11 한웅희(업무)11/12 배상호(대구)11/17 나종인(편제)11/25
- **회갑** ■
홍석진(기술)10/07 이상진(보도)10/17 장창현(보도)10/19 최화숙(ANN)10/20 김재복(관리)10/24 유기철(보도)10/29 김용남(편제)11/15 남두우(편제)11/22 이한철(편제)11/27 조명환(기술)11/28
- **결혼** ■
이병훈(편제)아들8/23 양홍열(기술)장남8/30 서정훈(보도)장남8/30
- **부음** ■
신승훈(업무)장인상7/15 하경목(기술)모친상7/28 김시리(편제)모친상8/20

회원/ 회비관리

- **평생회비** ■
이우용(편제)7/7 양재철(보도)7/11 하경목(기술)7/24 김시리(편제)8/4 강철용(편제)8/7 이장석(보도)8/27
- **연회비** ■
7월 : 김정명(14) 박순웅(15-19) 박해선(14) 유민환(13-14) 이종모(13-14) 이효일(14-15) 정경수(15-18, 80세납부끝) 황기찬(14) 황중휘(14)
8월 : 김귀현(14) 노영일(14)
- **신규입회** ■
金時利(편제) 010-9199-5850
강서구 금남화로 287-19, 504-801 (방화동, 방화5단지A)
梁在哲(보도) 010-3741-6425 02-782-2945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1-205 (여의도동, 대교A)
李愚庸(편제) 010-5580-7137 02-6203-5203
서초구 잠원로 150, 106-607 (잠원동, 잠원한신2차A)
李長錫(보도) 010-3741-6414 02-571-5561
서초구 명달로11길 6, 리안하우스 402호 (서초동)
河環穆(기술) 010-9105-2130 02-3463-2239
서초구 강남대로30길 51-14 웅진빌라 201호 (양재동)

홍현표(미주) 7월18일(금) 한밤중에, 살고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 부르크 자택에서 불이나 부부가 함께 별세했다. 향년 77세. MBC 재직시에는 주로 남산 송신소에서 근무했으며 70년대 말 미국으로 이민갔다.

전화/주소 변경

- 편제 : 강철용 010-8915-2389
김종수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 102-102 (탄현동, 큰마을대림A)
은희현 서초구 바우피로 91, 113-307 (양재동, 우성A)
최성근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23, 102-1602 (대방동, 우정A)
최영근 중구 퇴계로90길 74, 112-601 (신당동, 래미안하이베르A)
- 보도 : 김부영 010-3435-2532
박근숙 강남구 논현로 209, 101-2102 (도곡동, 경남A)
임동훈 010-5334-1186
편일평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41, 5304-506 (초당마을주공A)
- ANN : 김순환 서대문구 통일로39나길 21, 302호 (홍제동, 홍제주택)

- 기술 : 김종남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35번길 17, 1008-203 (백석동, 백송마을)
- 업무 : 김은식 서초구 방배로19길 67, 102-208 (방배동, 방배브라운A)
- 관리 : 김애경 동작구 장승배기로20길 20, 3층 (노량진동)
김재천 강서구 마곡중앙로 36, 1505-704 (마곡동, 엠밸리15단지)
김진홍 서초구 방배선행길 1, 105-403 (방배동, 방배우성A)
박 옥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19, 113-701 (정자동, 한솔마을청구A)
오양수 성북구 동소문로15길 99, 119-902 (동소문동7가, 한신희A)
유홍철 고양시 덕양구 동산2로 18, 2101-2104 (동산마을, 호반베르디움)
최종수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5, 217-1003 (도내동, 엘에이치A)
홍성기 010-3753-6967
- 대전 : 박명하 강남구 자곡로 101, 619-103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함께 사는 세상’ 발족(發足) 제안

은희현(편제) 회원이 자원봉사단 ‘함께 사는 세상(가제)’ 발족을 제안했다. 은회원이 제안한 자원봉사 내용은 1)강연봉사 2)노력봉사 3)시설봉사 등인데 강연봉사는 학기 말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라마, 쇼 등 오락 프로그램과 뉴스-스포츠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및 현장 에피소드 등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노력봉사는 태풍·

수해 피해지역과 가을철 수확 등 농촌 일손을 돕는 봉사, 그리고 독거노인과 양로원 시설, 무료급식소 등을 찾아가는 시설봉사 등이다. 은회원은 이런 봉사 활동이 회원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존재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며 MBC 사우들의 자긍심과 MBC의 이미지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량 회장은 은회원의 제안에 감사를 표하고 회원들의 반응과 참여를 살펴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사우회 사무실 집기비품 일부 교체

사우회 사무처는 8월22일 사무실 집기비품 일부를 교체했다. 교체한 집기비품은 회의용 테이블 1개와 의자 16개, 사무용 의자 5개, 그리고 책장 9개 등이다. 이 집기비품들은 MBC가 여의도 사옥에서 사용하던 것들인데 사용하던 부서에서 깨끗하게 관리해 새것이나 다름없는 집기들이다. 특히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들은 종전에 쓰던 것들보다 크기가 작고 아담해 사무실이 더 넓어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고객과의 신뢰, 믿을 수 있는 기업 동화AV(주)

다큐멘터리&보도용 조명이 필요 없는 카메라 - KBS 납품

HDL-4500은 일반 카메라와 다르게 매우 높은 Sensitivity를 구현하기 위해 3CMOS를 탑재했다.

Ikegami사가 추천하는 사용 용도

- 1. 보도용 카메라
- 2. 다큐멘터리 촬영
- 3. 조명을 쓰기 힘든 예능 프로그램
- 4. 파노라마용 카메라



슈퍼 슬로우 초고속 카메라 Key Features

2014 SOCHI Olympic 30대 사용

- + More than 10 times framing rate
- + High Capacity 96GB Memory
- + Recording When in Playback
- + Playback Without Server
- + Continuous Live Video Output
- + Flicker Correction Function
- + Flexible Recording Speed
 - 24 to 500 fps 1fps step (Full Mode)
 - 24 to 1000 fps 1fps step (Half Mode)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St. Moritz) 대회가 처음이었고 본격적인 참가는 1988년 캘거리(Calgary) 대회부터다. 그러나 올림픽정신에 맞게 참가에 의의를 두었을 뿐(?)이었는데 당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쇼트트랙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고, 다음 1992년 알베르빌(Albertville) 대회부터는 이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 효자종목이 되었다.

▶알베르빌 대회의 秘話

지금은 3社가 대규모 방송단을 파견해 국력을 과시하지만 당시엔 사무실 하나에 좁은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합동으로 응색한 방송을 하던 때였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쇼트트랙 만이 유일하게 신경을 쏟아야 할 관심종목이었다. 중계방송이라야 IBC 화면을 통해 메달경쟁을 치루는 몇몇 나라의 경기와 특정선수의 모습을 중계하는 등, 우리는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다. 빙상종목 모니터에 “대한민국 김윤만”이란 자막이 떠올랐지만 그냥 ‘1000m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지켜볼 뿐이었는데 막판 스퍼트의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방송 스텝에게 비상이 걸렸다. 모두들 우왕좌왕! 빙상 최초 메달리스트 김윤만의 극적인 상황을 생방송으로 담지도 못하고 인터뷰도 못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다행히 현

7080 有感

고 창근(ANN)

장에 있던 NHK의 도움을 받아 끝부분 인터뷰를 하는데 성공했다. '설마..아닐 거야..' 하던 생각이 아뿔사, 현실로 나타났으니...그것도 금메달을 딴 독일 올라프 진케(1분 14초 85)와 단 0.01초 차이! 정말 값진 은메달의 김윤만을 축복도 없이 시상대에 세울 뻔했다. 베를린 마라톤시상대에서 나라 잃은 슬픔에 고개를 떨군 손기정처럼..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할 빙상 최초의 값진 은메달 소식을 늦게나마 경기모습과 인터뷰 장면과 함께 녹화방송해 드린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슬프고도 아픈 추억의 하나로 기억된다.

▶7080의 중계

당시 동계대회 방송 스텝 구성은 캐스터가 해설까지 맡아서 했다. 최고 인기인 피겨 종목만 해도 요즘엔 다양성과 깊이 있는 해설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편하게 방송을 하지만 당시엔 이 몫도 캐스터 혼자 맡았으니 무던히도 공부하고 준비를 했어야 했다. 덕분에 유식한 캐스터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나름 뿌듯함과 함께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 때 국내 방송에 첫선을 보였던 낯선 종목의 컬링(Curling)! 중계방송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경기방식, 진행 등 모든 것이 백지인 상태에서 누가 나서서 중계를 할 것인지 난감했다. 할수없이 중계 하루 전날에 냉동실 같은 경기장에 하루 종일 몸담고, 점수 얻는 방법에서 부터 경기진행 방식을 보고 또 보고 체득한 결과를 역순으로 복기하고 정리해서 다음날 당당하게(?) 방송에 임했던 그 배짱 또한 대단했다. 무식하

면 용감하다는 말을 체험한 것도 그때였다.

▶소치와 평창

지난 소치올림픽엔 토리노, 벤쿠버 때의 성적에 의식해서 상중가를 염두에 둔 기대치가 조금은 실망으로 마무리 되었다. 안현수의 러시아 귀화로 인한 아픔 또한 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카트리나 비트' 이후 세계의 요정 김연아의 올림픽 2연패 좌절은 무척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명실상부 진정한 최고 스타로 확인된 자리였기에 그녀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건네 본다. 빙상 단거리 종목의 2연패(連覇)는 참 기적에 가까운 것인데 이상화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본인이 그 자리에서 중계 마이크를 잡았다면 어떤 표현을 했을까 가슴이 마냥 뛰기만 했다. 봅슬레이(Bobsleigh)가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 대회에 참가하는 열악함을 떨치고 썰매, 스키텐(Skeleton), 루지(Luge), 모굴(mogul) 등 특히 노르딕 복합,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13종목 모두 골고루 출전해 국위 선양하는 장면들이 아름다운 흰 눈의 축제 못지않게 귀하고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이 가슴 설레게 기다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저 참가에 의의를 두던 우리의 동계종목이 평창대회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되리라 기대한다. 제2의 김연아, 이상화가 탄생하지 않아도 종목의 고른 성장을 기대하고, 경기를 즐기며 판단하는 국민들의 수준 향상을 진정 바라면서 마음은 벌써 그때 개통될 평창행 KTX를 미리 타고 달려본다.



지면(地面)이 사라진 3차원의 어두운 공간에서 항공기가 갑작스러운 선회를 하다보면 신체의 감각기관은 한 순간 그 선회상태가 바로 수평비행 상태로 착각을 해서 항공기의 선회상태를 더욱 깊게 만들게 되고 그 결과 항공기는 양력(揚力)을 잃고 추락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의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의 특성(귀속뼈에 있는 迷路의 전정기관과 세반고리기관의 털 세포가 선회방향에 따라 누웠다가 즉시 회복하지 못하는)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를 항공용어로는 “버티고(VERTIGO)”라 한다.

불빛이 없는 캄캄한 밤이나 구름이나 안개 속 등 주변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분별할 수 없는 날씨에서는 비행착각에 빠지기 쉽고, 일단 비행착각에 진입하여(특히 돌발적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당황하게 되면 조종사는 평정심을 잃고 자신의 신체감각을 믿지 말고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비행자세계)를 믿고 비행해야 된다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기본원칙'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경험적 사례의 연구 결과, 인간은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것 보다 자신의 신체감각에 더 의존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도 비행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 결과는 비참한 대형사고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VERTIGO상태에서의 비행사고는 비행자세를 잃어 배면상태나 급한 경사상태로 양력을 잃고 항공기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생존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행

비행착각(飛行錯覺)

정갑표(기술)

장에서의 이·착륙과 고고도에서 항로비행을 하는 여객기의 경우, 대부분 자동비행조종장치(AFCS)를 연계하여 계기를 주로 참조하는 계기비행이 일상화 되어있으므로 비행계기나 계기착륙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행착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따금 그러한 비행계기와 시설물고장, 그리고 조종사의 착각을 동반한 판단착오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大型事故)를 유발하기도 한다.

1997년 8월6일 새벽, 어두운 비구름 속에서 계기착륙장치(ILS)의 고도유도장비(Glide Slope)가 고장 나서 '괘 아가나 국제공항'에 착륙접근 중 항법 시설물 위치와 비행고도 착각으로 착륙접근 경로상의 언덕에 충돌하여 승객, 승무원 254명 중 228명이 사망한 대한항공801편 추락사고와, 1993년 7월 26일 비구름 속에서 목포공항에 착륙접근 중 야산에 충돌하여 68명의 사망자를 낸 아시아나항공733편 추락사고가 바로 그러한 사고사태다.

고고도에서 계기비행방식의 수평비행을 위주로 하는 여객기와 달리 헬기는 저고도에서 시각참조물을 위주로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종석의 앞유리창(windshield)이 여객기와는 다르게 전방은 물론이고 위와 발밑 아래까지 모두 외부를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이는 시계비행에는 유리하지만 야간이나 구름이나 안개 속 등 계기비행 기상 조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비행착각에 도달한다.

1992년 2월 14일, 비가 오고 구름이 낮게 드리

운 날씨에 선산군 산동산 8부 능선에 추락하여 육군 군단장 등 7명의 사망자와 3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육군 UH-1H헬기 추락사고와 1994년 3월 3일 눈구름 속에 진입하여 용인상공에서 공군참모총장부부를 포함하여 6명 전원이 사망한 공군 UH-60헬기사고, 그리고 2008년2월20일 새벽, 야간비행 중 용문산에 추락하여 7명 전원이 사망한 육군 UH-1H헬기 추락사고와 빗속에서 임무를 마치고 포항공항으로 귀환하던 중 산에 추락한 해군 링스 헬기 비행사고 등이 모두 비행착각과 직, 간접으로 관련된 비행사고들이거나 구름 속 비행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비행고도를 낮추다 발생한 사고들이다. 아직 사고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최근 안개와 낮은 비구름상태에서 발생한 2건의 헬기사고도 본인의 비행경험 상 VERTIGO와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 추측된다.

항공기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인재임을 생각하면 '우린 왜 이럴까'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괜찮겠지'하는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고방식이 이러한 대형사고에 커다란 원인의 한 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전례 없이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따금 비정상상을 정상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문해본다. 하긴 나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후회할 일을 달고 살아가고 있으니 스스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전 MBC헬기 기장)

ESSAY

나의 문화방송 답사기

주철환(편제)



똑같은 제목으로 'MBC가이드'에 잠깐 연재를 했었다. 지속되지 못한 까닭은 둘 중 하나였을 게다. 좀 바빴거나 좀 게을렀거나. 쓸거리는 무궁무진했다. 별난 사람들이 많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넘쳤다.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답사기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 글은 언제 출간될지 모를 미래의 책에 대한 기약 없는 예고편이다.

나이가 들면 과거에 저질렀던 일을 자책하기 보다는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다. 난 참 운이 좋았다. 하고 싶었던 일을 거의 다 해보았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그건 MBC라는 비옥한 토양 덕분이었다. 거기서 씨를 뿌렸고 거기서 꽃을 피웠다. 과연 열매(實)는? 아쉽게도 내 인생은 유명무실(有名無實)과 명실상부(名實相符)의 중간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입사직후 어린이프로그램 '모여라 꿈동산' AD를 맡았다. 연출을 담당한 박명규 선생은 타이틀곡이 나올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했다. "주제가 바뀌고 싶은데 자네가 한번 가사를 써보는 게 어때?" 내가 국어교사출신이라는 걸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답변했다면? "제가 감히 노랫말을 쓰다니요. 전 그냥 소품이나 잘 챙길게요." 그러나 내 입에선 정반대의 말이

튀어나왔다. "외람되지만 혹시 제가 작곡까지 하면 안 될까요?" 당혹해하던 선생의 표정이 눈에 선하다. "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취미로 노래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일단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후보작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는 선생 옆 자리에서 노래 하나를 똑딱 만들어냈다.

"숲길을 돌아 구름을 타고 꿈동산에 왔어요/ 새들은 날아 꽃들은 피어 노래하는 꿈동산/ 하늘 아래 땅 위에 모두가 친구죠/ 아무라도 좋아요 꿈동산엔 답장이 없으니까요" 참 당돌했던 신입 사원이었다. 선생은 나를 약단실로 데려갔고 나는 장익환 단장 앞에서 방금 출시(?)된 따끈따끈한 자작곡을 과감하게 불렀다. 일주일 후 그 노래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셋별이(정민정)의 음성을 타고 전국에 울려 퍼졌다. 흥분과 설렘을 무엇에 견주랴.

그 후로도 나는 캠페인 '같이 사는 사회'와 '퀴즈아카데미'의 주제곡을 잇달아 만들었다. "즐거운 일도 우린 같이/ 괴로운 일도 우린 같이/ 언제나 친구같이/ 같이 사는 사회/ 가치 있는 사회" "꽃바람 부는 대로 흐르는 세상/ 뭐 신나는 게 없을까/ 가는 대로 버려두긴 아까운 날들/ 멋지게 살아보세/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지/ 오 내 친구야/ 이제는 떠나야지 꿈을 찾아/ 퀴즈 아카데미" 유심히 들어보면 내가 만든 노래들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 바로 '친구'다. MBC에 근무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노래가 방송에서 울려 퍼진 기억이 난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돌아보니 MBC야말로 나의 평생친구였다.

요즘 들어 자주 시를 쓴다. 새벽에도 쓰고 학교 가는 길에도 쓰고 잠자기 전에도 쓴다. 결코 시인의 마을까지 침범하려는 의도는 없으니 안심하시라. 그냥 글자 그대로 취미생활의 연장이다. 내 시의 특징은 '짧다'는 것이다. 일종의 한국형 하이쿠(俳句)라고나 할까. 제목은 거의 두 글자이고 내용도 네 줄을 넘지 않는다. "개는 짖는다/ 새는 지저귄다." (제목 '평화')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게/ 너는 그렇게 살다 죽으렴" (제목 '존중') "돌아갈 순 없어도/ 돌아볼 순 있다" (제목 '반성') "옳았다고 말하진 말자/ 이겼다고 말하면 된다" (제목 '승부') "상 받은 자 옆에는/ 상처받은 자가 있다" (제목 '인생') 대충 이런 식이다. 네 줄짜리도 있다. "옹달샘은 웅벽을 쌓고 산다/ 새벽에 토끼가 물만 먹고 간다/ 바다는 모두를 받아들여 바다가 됐다/ 물고기와 해녀들이 고맙다고 인사한다" (제목 '바다') "밥 먹을 때마다 행복하다면/ 하루에 세 번은 행복한 거다/ 숨 쉴 때마다 행복하다면/ 매순간 행복할 거다" (제목 '행복')

돌아보니 감사한 거 천지다. 감사의 열매가 곳곳에 매달려 있다. 내가 수확한 열매의 다른 이름은 봉사(奉仕)다. 많은 걸 누렸으니 조금씩 갚아야겠다. 갑자기 나를 향해 일제히 이렇게 외치는 듯하다. "말로만?" 유명무실이나, 명실상부나. 결국은 그것이 문제로다.

봉사하는 즐거움

한 소년의 기적 같은 변화

정진민(관리)



"이제 자해(自害) 같은 건 안할 거예요.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었어요." 만 14세 중학생 소년의 결의에 찬 말이었습니다. "와우~! 감동이다~~!! 그래! 정말 그럴 것이라 믿는다. 아주 반갑고 고맙디 고맙구나!" 심리상담사인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50분 정도, 영등포구 디지털로에 있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OO이를 상담한지 아홉번째 되는 날이었지요.

OO이는 커터로 손목을 긋거나 배를 긋거나 하는 자해를 열번 이상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휴대폰도 훔치고 오토바이도 훔쳐 타고 달아나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여자의 핸드백도 뺏치기해서 그 돈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하다가 CCTV에 찍혀서 경찰에 잡혀갔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법원 판사는 대부분 이런 아이들을 감화소나 수용시설로 보내는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80 여명 이상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살레시오청소년센터지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다. 너의 영혼만을 나에게 맡겨다오!" 가난하고 소외받으며 위험 중에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이탈리아의 '성 요한 보스코(St. John Bosco)'의

호소가 살레시오의 근본 정신입니다.

OO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형은 실업고를 졸업하고 취직했지만,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 OO이를 괜히 때리곤 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니다. 바로 밑 누둥이 동생하고는 잘 지내는 편이지만요.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심리상태가 된 것이고 그럴 때마다 못한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지요. 그런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되면, 서로 나누는 정은 정말 전우에 이상이랍니다. 목마른 사막의 방랑자에게 한 모금의 물처럼 달콤하고 살맛나게 해주는 정겨운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의 정과 의리를 위해서라면 강도 같은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감성의 융성기, 이성의 혼란기가 바로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을 상담하는 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감성이 어떤 욕구에 의해 강하게 추동력을 지니며, 이성엔 또 어떤 이유로 그 역할이 연약해지는지를 잘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에 앞서, 그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느끼고 있어야만 하는 게 필수조건이 되지요. 그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 죽겠

다는 느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인간의 언어는 잘해야 15%, 언어가 아닌 나머지 메타언어(meta language)능력이 이미 서로의 호감도를 직관적으로 느끼고 파악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의 크기"를 가장 먼저 탐색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모든 만물을 생육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OO이의 부활 같은 변화에는 상담 말고도 다른 힘이 작용한 게 틀림없습니다. 살레시오센터의 미사가 주는 은총이 있었고, 상담시간에 OO이와 손을 맞잡고 함께 올린 기도의 힘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은 OO이가 세례를 받은 일이었습니니다.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다시 태어났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례 받은 이후로 OO이의 얼굴은 유난히 빛이 나며 환해졌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숙여진 고개와 광채 없는 눈빛과 자신 없는 말투와 움츠린 어깨 등은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신묘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환희에 넘치는 감동을 주고 삶의 보람을 만끽하게 해주는 까닭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도록 이어진 인간생명체이기 때문이라는 것 밖에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일입니다.

† 선후배 동료 사우 여러분의 평화를 빕니다

이 사람

봉 현 숙(편제)



「대장금」을 비롯한 ‘한류 사극’이 외국인들에게서 인기를 얻는 데는 다양한 한복의 아름다움이 한 몫을 하고 알려져 있다. 아닌 게 아니라 HD화질이 대세인 요즘 TV를 통해서 보이는 한복은 색감이나 디자인에서 아름다움을 넘어 우아함까지 느끼게 한다. TV에 등장하는 한복이 이렇듯 좋은 평판을 얻기까지 숨은 공로자 중 한 사람이 봉현숙 회원이다. 1984년, 무려 29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TV의상 디자이너’ 제1호로 MBC에 입성한 봉현숙 회원은 입사 30년이 되는 올해 초에 퇴직했다. TV 드라마에서 특히 여성 한복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유명한 봉현숙 회원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했는데 방송 의상분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1993년 미술부가 미술센터로 옮겨 간 이후로는 영화 작업에도 참여했는데 거기서도 그녀의 실력은 어김없이 발휘되어 <춘향전> 촬영을 하는 동안 임권택 감독으로부터 의상에 대한 극찬을 받았음은 물론, 1999년 <아름다운 시절>과 2000년 <이재수의 난>으로 대중상 의상부문에서 연달아 수상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국고교 기능경진대회’ 재봉부문에서 입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의상학을 전공했고, 석사학위까지 가진 최초의 ‘TV의상 디자이너’라는 자부심과 부푼 꿈을 안고 출근한 그녀에게 맡겨진 첫 업무는 그러나 6.25특집극에 쓸 ‘저지 옷’ 만

방송 의상 역사를 만들어 온 산 증인

들기였다. 상상도 못했던 작업 지시를 받고 난감했지만 재봉사 아줌마들의 도움을 받아 멸평한 옷감을 망치로 두드리고, 줄톱으로 문지르고, 클린싱 크림과 흙을 바르는 등 가까스로 완성했지만 작업이 끝났을 때는 그녀의 마음 또한 후줄근한 냉마가 된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1년가량, 직업에 대한 갈등과 방향을 겪었지만 TV드라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된 작업 후에 얻어지는 성취감’이 그녀를 다시금 현장으로 끌어내곤 했다. 드라마 의상 만들기 작업의 최대 고민은 언제나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었다. 사극이나 대하 드라마에서는 의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지만(예컨대 ‘주몽’의 경우 대략 150여 종에 4,500여 벌의 의상을 직접 제작했다) 의상 쪽에 배당되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다. 다행히 인기있는 현대극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협찬을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지만 녹화 도중 협찬 의상이 훼손이라도 될라치면 협찬처에 백배 사죄를 구하는 수모도 겪었다.

의상에 대한 연출자의 요구도 제각각 달랐다. ‘대장금’을 연출했던 이병훈PD는 의상의 고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편이라서 그가 맡은 사극 의상을 위해서는 도서관과 자료실을 뒤져 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야 했지만, ‘다모’를 연출한 이재규PD는 퓨전사극이니 만큼 고증보다 드라마의 분위기에 어울리고 출연자가 돋보이는 의상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주어

졌다. 그로 인해 2003년 그녀가 담당했던 ‘다모’에서 선보인 의상 들은 이후 사극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평을 얻었고 시중 한복가게에 ‘예쁜 한복’이 넘쳐나는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동양의 오방색(五方色)을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5위(衛)에 대입하여 소속마다 다른 색깔의 군복을 입혔을 뿐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쓰는 줄무늬를 차용하여 무사의 의상에 그려넣는 파격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그러나 대본이 일찍 나올 때나 가능할 뿐, 대본은 항상 늦게 나온다. 그럴 경우 의상팀은 매일 밤을 새워 자르고 붙이고 만들며, 이렇게 만든 의상은 녹화 전 출연자들에게 미리 입혀보고 녹화 중 훼손되면 손봐주고 녹화가 끝나면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녹화현장을 지킨다. 수거한 의상들은 세탁을 맡기거나 다음 녹화를 위해 정리하는 작업까지 마쳐야 하루 일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육신은 매일 파김치, 늘상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30년 세월이었지만 입사동기인 남편 김재형(관리)의 이해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디자이너에게 궁금한 질문-이영애가 저 옷을 입어서 더 예뻐 보이는지 아니면 이영애가 입었기 때문에 저 옷이 더 예뻐 보이는지-에는 예쁜 미소로 답한다. 글/ 편집장



드라마 '다모'의 하지원씨와 함께

MBC 스포츠 플러스 독점 방송!

메이저리그

대한민국 1등 스포츠채널 MBC SPORTS+

Let's plus! MBC+ MEDIA MBC Drama MBC every1 MBC MUSIC MBC Queen MBC SPORTS+

www.mbcplus.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 전화 : 02) 368-2500